



## 전북 전주·완주

# 사찰 100 교회 1300 “치솟는 불심 일당백”

**# 전주** 전북불교 포교 일면지는 단연 전북불교회관(원감 덕림 스님)이다. 전주의 관문 고속터미널 옆에 자리한 전북불교회관은 국내 최초의 도심포교당으로 1985년 준공됐다. 대지 362평, 건평 172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회관은 법당, 수행단체 사무실, 불교 어린이집 등이 자리해 있다. 화엄불교대학교 거사회, 청년회, 화엄회 등 각종 수행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대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노인들에게 5년째 무료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들에게 매일 도시락 80여개를 배급하고 있다.

대사회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전주 불교계는 전북불교회관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시작으로 불교복지에 눈을 돌리게 된다. 3년 전, 금산사 복지원은 전주시로부터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우용호)을 위탁받아 시설복지에 첫발을 내디뎠다. 서원노인복지관은 취미, 여가, 건강 및 교육프로그램 60여개가 개설되어 매일 1000여 명의 지역노인이 복지관을 찾고 있다. 특히 일거리작업장을 개설해 80여명의 노인들이 단순작업을 통해 용돈벌이까지 하고 있다. 지역 사람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불교위상을 높이고 있는 서원복지관(063-227-7483)은 지난해 전북 시민평가단으로부터 최우수복지시설로 선정된 바 있다.

전주 지역의 대표사찰은 옛적부터 전주를 지켜온 비보(裨補)사찰로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남고사(주지 원해)는 후백제 산성사찰로, 남고모종(南固菴鐘: 해질녘 남고사의 범종 소리는 전주 8경중의 하나였다.

전주의 진산인 완산절봉 주봉에 자리한 정혜사(주지 해일)는 1998년 삼천동에 완산불교회관을 건립하고 전북불교대학에게 무상임대하는 등 도심포교 일선에 나섰다. 사찰경내에 전주유일의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이 있으며, 초파일에 앞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금년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편하게 찾는 지역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경허, 만공, 한영, 용성, 탄허, 구산 스님 등 근 현대 한국불교에 있어 기라성 같은 선지식을 배출한 전북. 얼마나 깊은 불연(佛緣)이 쌓였기에 난세에 큰 스승들이 줄을 이었을까. 그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지역에서 먼저 엿볼 수 있다.

전북의 고도 전주(全州), 완주(完州)는 이름이 말해주듯 ‘완전한 고을, 온 고을’을 뜻한다. 온 고을은 전쟁은 물론 천재지변에도 큰 탈 없이 천년을 이어왔다. 그래서 옛부터 산과 물을 보는 이들은 이곳을 일러 그대로 법당이요, 부처님 땅이라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이 물음에 대해 지역불자들은

태고종은 부모에 이어 대를 이은 2-3세 스님들의 등장이 눈에 띈다. 전북 종무원장 향산 스님은 “얼마전만 해도 스님의 자제인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당당하게 수행자 길을 걷는다”며 “부모 밑에서 습득한 법이 몸에 익은 젊은 스님들이 포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기대가 높다”는 설명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이같은 종단의 변화를 살려 수행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의식, 교리교육과 불교대학 개설로 신도교육은 물론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몇 년 전, 전주도심의 대표적 건물 하나가 포교당으로 재출발했다. 70년전 일제때 세워진 중앙척식회사 건물이 몇 차례 간판을 바꿨다가 도심포교당 ‘선각사(주지 선각)’가 됐다.

570여 평 규모의 선각사는 법당은 물론 불교문화원, 전통다원 등을 갖추고 있어 도심포교당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선각 스님은 백양사 교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상좌로 광주에도 도심포교당 관음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전주역 부근 대형빌딩에 자리한 ‘참 좋은 우리 집’(주지 회일)도 도심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개원 5년째인 참 좋은 우리집은 새벽예불부터 밤늦게 까지 교리공부, 기도, 정진, 봉사활동 등으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 법회에만도 200여명의 신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 도심포교당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은 대담대신 고개를 넘는다. 전주, 완주지역에 사찰이 100여개인 반면 교회가 1300여개로 추정되는 숫자만이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천주교 200년, 기독교 100년 만에 호남불교가 고전하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세월은 또 흘렀다.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불자’라고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던 것이 이 지역의 정서였다면, 이제는 ‘불교인’이라고 하면 왠지 심지가 깊고 지혜 있는 이로 추앙받는 추세이다.

시쳇말로 요즘의 전북불교는 ‘바닥치고 위로 치솟는 불교’라 하겠다. 그래서 더욱더 전북불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주지 회일 스님은 “내년 준공되는 삼천동 법당은 2000여 평의 부지에 유치원,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교육,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도심사찰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전북불교에 있어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재가불교교육이다. 1988년 3월 개교한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17회에 걸쳐 220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재가법사를 배출했다.

전북불교대학보다 한해 늦게 출범한 화엄불교대학(학장 평상 스님)도 현재까지 1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북불교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전주의 양대 불교대학은 해마다 200여명의 정예불자들을 배출해 내고 있어 전북불교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불교대학 학인들이 포교와 자비실천을 펼치며 지역불교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최근 전북불교계에 거사법자가 늘고 불자들의 연령이 낮아진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신행단체로는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를 비롯해 불교대학 졸업학인들의 각종 문화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지역 신행단체로는 천천클럽(회장 오종근)이 주목받고 있다. 전주에서 1999년 처음 출범한 천천클럽은 ‘천명이 매일 천원씩 후원해 이웃에게 봉사’하는 모인이다.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천천클럽은 매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생 활비 지원은 물론 소년원 법회(월 2회)운영, 경노식

당 지원 및 봉사 등 지역의 사회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천천클럽(063-255-0108)의 활동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익산, 충주 등에서 천천클럽을 발족해 전국조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완주는 지역적으로 전주시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지금은 도심지가 발전하면서 전주의 큰 구별이 없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완주는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불교적으로 완주는 유별나게 진북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북 스님의 출가본사 봉서사, 성도후 보림처

였다. 일요법회를 통해 신도교육에도 혼신을 쏟아 이제 3000세대의 신도가 가람을 호위하고 있다.

완주불교의 신바람은 남서쪽 모악산도 만만치 않다. 모악산의 대표 등산로에 자리한 대원사(주지 석문)는 지난 4월 화전축제를 열었다. 모악산 진달래를 매개체로 이 축제가 참석한 대중이 1만명이었으니 모악산 최대의 야단법석이라 할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원사는 모악산 주저장에서도 30여분을 끌어 올릴까 하는 산중사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금년으로 4회째 열린 화전축제는 준비에서 진행까지 철저하게 지역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주관한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불교를 주창하는 석문 스님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4개 초등학교 전교생은 물론 가족까지 초청해 법주사로 사찰순례를 떠나기도 했다. 버스 15대에 나눠 탄 순례객은 전북 최대규모의 시민사찰순례단으로 아직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11월 20일, 지역불자들의 문화공간으로 향적당을 건립해 공공법회를 가졌다.

고산에 자리한 흥련암(주지 대신)은 참선도량으로 눈 푸른 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흥련암은 대신 스님의 생가로 30여 년 전 도량으로 개설해

**# 완주** 완주는 지역적으로 전주시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다. 지금은 도심지가 발전하면서 전주의 큰 구별이 없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완주는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다. 불교적으로 완주는 유별나게 진북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북 스님의 출가본사 봉서사, 성도후 보림처

### 전주

## 전북불교회관 지역포교·교육·봉사 원동력 천천클럽 1천여 회원 ‘이웃과 하나’된 삶

### 완주

## 송광사·위봉사·봉서사 등 고찰 ‘밝은 법등’ 화전축제 등 주민 결속... 영산재 보존 ‘자랑’



전북불교회관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전북불교계의 대사회복지 활동을 리드하고 있다.

### ■ 전북불교를 말한다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송광사 주지)

### “포교당서 법회하던 학생들이 전북불교 꽃피우는 주역”

“70년대 초반 해도 전주시 내 고등학교의 절반이 기독교 학교였습다. 아이들을 더 이상 타종교에 맡겨서는 안 되었는데 시대에 금산사포교당을 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전세로 법당을 꾸미고 학생회를 조직했던 것이 전북대불련의 시작입니다”  
당시 금산사 총무였던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사중의 어려움 속에도 포교당을 낸 것이 오늘의 전북불교 발판을 이루었다”고 회고한다.  
그렇지만 험기왕성한 학생들이 드나드는 법당은 이웃에게 귀찮은 존재였고 매년 이사하기를 반복해 10여 차례 옮겨다녀야 했다. 80년대 들어 스님들이 포교당에 상주하면서 학생회뿐 아니라 일반법회를 개설하게 되었고 전북불교가 꽃피기 시작했다.  
“10여 년 간 전세법당을 전전하다가 1986년 전북불교회관을 준공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심포교당으로는 처음이었고, 각처에서 포교당 견학자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다녀갔습니다.”  
도심포교당 운영의 모범을 보인 도영 스님은 “이제 전북불교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이 필요하고, 분야별 조직이 되어있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등암, 풀어서 수행하던 대원사, 송광사 등 유서깊은 완주지역 사찰은 대부분 진북 스님의 일화를 담고 있다.

완주의 대표가람인 송광사(주지 도영)는 순천의 승보종찰 송광사와 사명(寺名)이 같아 일반인들에게 많이 혼동되고 있지만 사적으로 보아 결코 순천 송광사에 뒤지지 않는다.

현 주지 도영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장을 맡아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으며, 국내 최대 크기의 범당내 좌불이 새우(개굴불사)를 입고 다음달 일만에 선보인다. 또한 가족법회와 자원봉사단을 통해 포교와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송광사 주산인 추출산 정상부근에 자리한 위봉사(주지 법중)는 일제 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31본사의 하나였다. 1911년 당시만 해도 전북 일원의 46개 사찰을 관할하는 본사로 위상을 갖추고 있었으나 각종 화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찰에 거주하는 이가 없어 지역 대학생불교연합회원들이 상주하며 지켜냈다.

1988년 현주지 범중 스님이 부인 받아 왔을 때 위봉사는 누울 자리 하나 없는 폐허였다. 스님은 “위봉사가 일어나야 전북불교가 산다”는 원력으로 백장정규에 따라 일과 수행을 병행해 오늘의 대가람을 일으켰다. 1990년 비구니 선원을 개설해 겨울, 여름 안거는 물론 봄, 가을 산철결제를 하며 선원을 일으

스님이 직접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붉은 연방종 토굴로 유명한 흥련암 선방은 매일 1,3주 토요일 철야 용맹정진하는 재가불자들이 가득하다. 스님 밑에서 장군축비 맞아며 거쳐 간 재가선객이 400-500명에 이른다.

폐찰된 요덕사를 중창해 납자들을 제접하고 있는 대신 스님은 “전북은 숨은 도인이 많은 곳으로 출가는 물론 재가자들 가운데도 공부가 익은 이들이 많다”며 “향후 한국불교를 이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고 소개한다.

또한 완주불교의 자랑으로 봉서사 영산재작법 보존회(회장 석경 스님·지방문화재 18회)가 있다. 198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기에 대상을 수상하면서 봉서사 영산재작법보존회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각종 불교행사에 봉서사 팀이 참석해야 행사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암 스님의 법파와 석경 스님의 작법으로 구성된 봉서사영산재 작법보존회는 호남 법음회, 광주 영산재 등의 초석이 되어 보존되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유서깊은 봉서사는 최근 조·태 분규 재현으로 지역불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고 있다.

전주 완주 =이준엽 기자



완주 대원사가 매년 개최하는 화전축제.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하나되는 불교를 실현한다.